

일일 벤처 체험기

이번 호 일일 벤처 체험에 참여해 주신 양은경 씨는 가비아·홍보팀 양은희 사원의 여동생으로 올해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공무원 시험을 준비중입니다.

일하고 싶은 문·화·일·터, 은경 씨의 가비아 답사기

대학 졸업식을 일주일 앞둔 사회초년생 양은경(24) 씨, 말로만 듣고 짐작만 했던 그곳, 언니 양은희 씨가 근무하는 웹호스팅 전문기업 가비아를 찾았다. 꿈만 먹고 사는 곳이 벤처인 줄 알았다는 그녀, 가비아 곳곳의 아기자기한 인테리어와 편안한 복지시설 등 벤처의 의외의 면모에 폭 빠졌다고 하는데... 순수한 미소가 아름다운 그녀의 일일 벤처 체험, 그 신나는 하루를 따라가 보았다.

TIP.... 든든한 웹 파트너, 가비아

국내 최대의 도메인 전문기업 가비아(www.gabia.com)는 인터넷에서 가장 필수적 요소인 도메인, 호스팅, 홈페이지 등 온라인 서비스의 인프라 구축 사업과 함께 웹 메일, 쇼핑몰 빌더 등 독자적으로 개발한 웹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술지향적인 중견 벤처기업이다.

국내 도메인 시장에서 25% 이상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이 기업은 작년 10월 동종업계 최초로 코스닥에 상장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으며 일본 내 특허 출원 등을 통해 국내 솔루션 개발 기술의 우수성을 해외에서 입증한 바 있다.

◎◎ “지문인식으로 출입을 통제하다니 역시 벤처는 IT하고 친한 사 이인가 봐요.”

은경 씨가 가비아의 성문에서 맞닥뜨린 지문인식시스템. 반늦은 퇴근 보다 이른 출근을 통해 성실성을 체크하는 가비아의 철통같은 수문장 이다. 그렇지만 자네검작으로 오해는 하지 말자. 이 수문장의 역할은 지각한 사람을 엄벌에 처하려는 조치가 아니라, 지각을 하지 않은 사 람을 차하하기 위한 장치이다. 일 년 동안 한 번도 지각을 하지 않은 사 람에게는 연말에 수상의 영광을 안겨줌으로써 그 근면성을 보상해 주는 것이다.

성실한 아침을 권장하는 만큼 직원들의 아침 식사 또한 확실하게 책임 지는 것이 가비아의 합리적인 경영 방침이다. 죽이 든든해야 일도 잘 되는 법이라며 매일 아침 인근의 분식집과 베이커리에서 배달되는 김밥과 샌드위치로 전 직원의 기력과 활기를 뒷받침한다.

“이렇게나 많은 종류의 신문을 읽으려면 언니 미리에도 웹사이트 하 나 만들어야겠어요.”

벤처 일일 체험 에 취업 준비중인 동생을 적극 추천한 홍보팀의 양은 희 사원은 각종 신문을 스크랩하는 것으로 업무를 개시한다. 주요 일 간지와 경제 전문지의 기사들을 일일이 체크해 사내 메신저로 발송하

AM 08:45
AM 11:05



“한 수 지도해 주마”

“열러라, 잠깨”

는 이 뉴스브리핑은 가비이인과 세상을 잇는 징검다리가 된다.
 빠른한 어깨도 두드러 주고 한 숨 돌리는 마음의 여유도 가질 수 있는
 곳, 별종고 쾌적한 이곳에서 쉬러. 직원 공모로 지어진 모던한 분위
 기의 아늑한 쉼터 쉬러는 정오를 알리는 종이 울리면 정겨운 분위
 기의 식당으로 변모한다. 옹기종기 모여 앉아 도시락 뚜껑이 열릴 때 마
 다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고 군침이 돌고, 때론 탄성이 쏟아진다.
 비싼 벤처인이지만 교양을 쌓는 일에도 소홀할 수 없는 법. 이를 위해
 가비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루에 다섯 번 이상은 방문하는 하우스
 로 가는 길목에, 사내 도서관 느티나무를 심어 직원들에게 해박한

지식의 지양분을 공급한다.

“언니가 오후가 되면 브레이크타임 한다는 아이디어 회의를 지켜보면
 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벤처의 진정한 매력은 자유로운 분위기가
 아닌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에 있구나. 상사가 수직적으로 명령을 전달
 하는 체계가 아니라, 의견을 함께 나누고 수렴하는 모습, 이런 게 바로
 자유로운 벤처의 진정한 모습이구나 하는.”

자유로운 사교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가비이의 김홍국 대표는 11층에
 위치한 사무실에 멋스런 나무를 심었다. 찬장을 받치는 크고 맛있는
 가동을 나무로 둘러 숲 속 이미지를 연출해 낸 것이다. 뿐만 아니라 회

PM 12:15
 PM 14:50



가비이팀방도 식후경



톡톡 튀는 아이디어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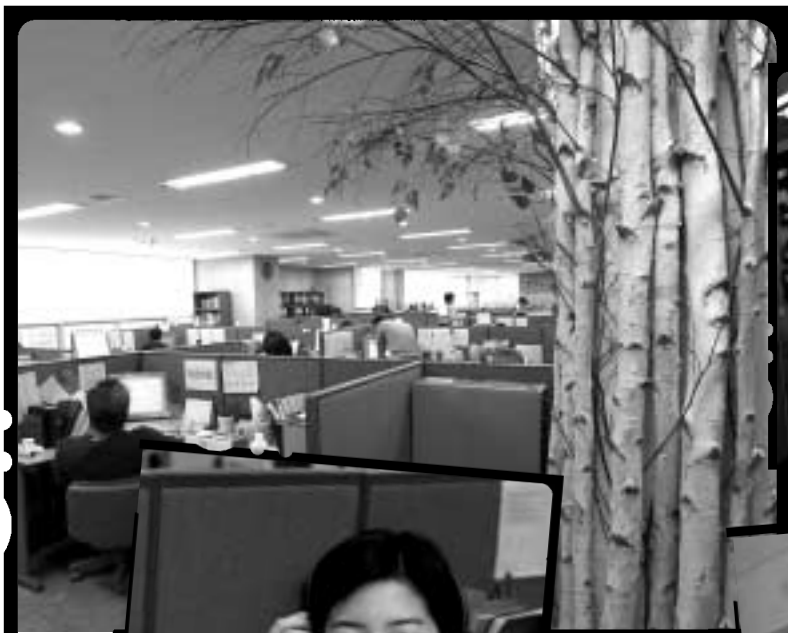
사 곳곳에 화분과 세련된 인테리어 소품을 활용해 보다 자연적인 환경에서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신경 쓴 세심한 배려가 엿보인다. 멋진 아이디어가 반짝하고 떠오를 것 같은 전망 좋은 회의실, 직원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넓은 교육장, 보다 안정적이고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자체 보유하고 있는 서버실 등 알하기 좋은 기업 을 목표로 노력하고 고심한 흔적이 곳곳에서 묻어난다. 이러한 배려는 업무 분위기에서 그대로 투영된다. 가비아의 최전방을 지키며 고객의 문의를 응대해 주는 웹 네트워크 사업부는 도메인과 호스팅 서비스 제반의 일을 책임지는 막중한 업무에도 부드럽고 활기

에 찬 모습이다.

“베쳐리고 했을 때 열심히 일에만 몰두하겠구나 생각했지. 솔직히 업무 환경이나 문화공간에 대해서는 전혀 기대를 안 했었어요. 그런데 하루지만 직접 베쳐인이 되어 그런 편견에서 통쾌하게 벗어나서 기분 이 좋아요.”

이번 가비아 일일 체험 덕분에 언니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해하게 됐 다며 웃음 짓는 양은경 씨의 미소가 봄을 부르는 듯하다.

PM 16:10
PM 17:45



“웹 솔루션 가비아와 상의하세요~”

양은경(왼쪽) · 양은희 씨 자매